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試論

— 〈韻略易通〉의 音價를 통하여 —

安 在 哲*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 一. 聲 母
 - 二. 韻 母
 - 三. 聲 調
- III. 結 論

I. 序 論

漢語는 그 시기를 구분할 때, 대체로 詩經이나 諧聲字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先秦時代의 上古音, 隋·唐代의 切韻系韻書 등이 대표하는 中古音, 宋末의 《古今韻會舉要》등에 반영된 近古音, 元代 《中原音韻》 등에 나타나는 近代音, 現代官話 및 方言을 포괄한 現代音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시기구분에 있어서, 《韻略易通》과 《韻略匯通》¹⁾이 차지하는 위치는, 元代 《中原音韻》을 잇는 後身이며, 現代 普通話를 여는 前身이기도 한 北音系韻書의 일종으로, 오늘날 普通話의 音價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의 敘述은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의 시기에 있어서 北音系韻書의 音價 모습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中原音韻》과 普通話와도 비교함으로써 相互간의 差異點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Dep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의 聲母 韻母 聲調 등의 이름과 音價 등은 〈水〉〔水〕 등과 같이 각각 〈 〉과 ()에 넣어서 구분한다.

Ⅱ. 本 論

一. 聲 母

一般的으로 어느 시기의 聲母音價를 研究하는 방법은, 中古 36字母의 분류를 기준으로 삼되, 36字母가 어떻게 分離되고 合致되는지를 살펴 당시의 音價를 推定하는 것이다. 本稿에서도 이런 방법을 채택하여, 中古의 36字母가 어떻게 分離되고 合하여졌는지를 살펴보되, 《韻略易通》에서 최초로 設定하고 《韻略匯通》에서 襲用한 早梅時(東風破早梅, 向暖一枝開, 永雪無人見, 春從天上來)²⁾ 1首를 調音場所와 方式에 따라 6가지로 再編成하여 叙述한다.

대체로 《韻略匯通》은 《韻略易通》의 配列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몇몇 곳에서 《韻略易通》에는 없는 새로운 글자를 취한 경우³⁾도 있고, 《韻略易通》이 配列한 것과는 다른 자리에 배열한 경우⁴⁾도 있으니, 두 韻書의 配列上의 差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韻略匯通》도 《韻略易通》에서 設定한 早梅詩를 그대로 답습하여 20개의 聲母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커다란 變化를 찾아볼 수는 없을지라도 약간이나마 두 韻書의 差異點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두 方言의 特徵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本人은 《韻略易通研究》라는 論文에서 학자들의 研究가 잘못된 점⁵⁾을 고쳐 《韻略易通》의 聲母體系를 推定한 바가 있는데⁶⁾, 이곳에서는 拙稿에서 推定한 것을 定例로 삼되, 혹 偏旁이나 기타 作家의 어학적소양의 미비로 인하여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韻略易通》의 잘못을 《韻略匯通》이 고쳤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골라 叙述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며, 例外가 결코 例外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 定例로 假定한 것을 수정하여 새로운 定例를 確定하기로 한다.

1. 雙脣塞·鼻音

中古 36字母의 重脣音(雙脣音)聲母인 幫·滂·並·明母 등의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 2) 趙蔭棠, 羅常培 등의 學者들이 거의 例外없이 그 音價를 순서에 따라 (t, f, p', ts, m, x, n, θ, tʃ, k', p, s, v, ʒ, k, tʃ, t, ʃ, l) 등으로 확정하였으며, 本稿 또한 그것을 따른다.
- 3) 例를 들어 [庚晴]韻 [破]母의 開口細音에 配列된 攄의 경우 《韻略易通》에는 보이지 않으나 《韻略匯通》에 배열한 글자이다.
- 4) 例를 들어 [庚晴]韻 [破]母의 聘聘과 같은 글자는 《韻略易通》에서는 下平聲의 자리에 배열하고 있으나 《韻略匯通》에서는 去聲에 배열한 예이다.
- 5) 《韻略易通》의 <枝>母는 실제로 中고 莊·章母와 崇母의 仄聲字로 이루어져 있는데 羅常培氏와 같은 학자는 실제로 <上>母에 배열된 中고 船母의 仄聲字까지도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韻略易通》의 <上>母는 실제로 中고의 船·生·書母의 모든 글자와 禪母의 모든 仄聲字, 그리고 일부 平聲字로 구성되어 있는데, 船母의 글자를 崇母의 글자와같이 平聲은 <春>母에, 仄聲은 <枝>母에 배열하고, 禪母 平聲의 일부 글자가 <春>母에서 빠져나와 <上>母에 배열된 것을 간과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 6) 拙稿 《韻略易通研究》(延世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년), 77쪽 參照.

1) [水]

[水]母는 《韻略易通》이나 《韻略匯通》이 모두 中古 36字母의 幫母字와 並母의 仄聲字들로 이루어져 있다.

2) [破]

《韻略易通》이나 《韻略匯通》이 모두 中古 36字母의 滂母字와 並母의 平聲字로 이루어져 있다.

3) [梅]

中古 明母字로 이루어져 있다. 明母의 경우 거의 例外가 없는데, 이는 送氣와 不送氣로 혼동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輕·重唇音(雙唇·唇齒音)의 혼동은 그것이 비록 切韻時代에는 微母와 섞였다고는 하나, 唐末宋初에 이르러 微母字는 分化되어 東韻三等字를 除外한 모든 合口三等字가 唇齒鼻音(/m-/)으로 발음되었고, 더우기 이후의 北方音에서는 鼻音이 後記할 [無]母의 글자인 唇齒音(/v-/)으로 變化되었다가, 半元音 /W-/를 거쳐, 결국 元音 /u-/를 형성하여 零聲母化되었기 때문이다.

2. 唇齒擦音

中古 36字母의 輕唇音(唇齒音)聲母인 非·敷·奉·微母 등의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1) [風]

中古 36字母의 非·奉母字로 이루어져 있다.

2) [無]

中古 36字母의 微母字로 이루어져 있는데,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은 <一>母와 [-]母를 設定하고 있을 뿐 아니라, <無>母와 [-]母까지도 따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唇齒音(/v-/)과 零聲母를 엄밀히 區分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普通話에서는 이곳의 <無>母와 [-]母가 零聲母化되어 <一>·[-]母의 글자들과 섞이고 있는 것이다.

3. 舌尖塞·鼻·邊音

中古 36字母의 舌頭·舌上音(舌尖塞·舌面塞音)인 端·透·定·泥·娘母字와 半舌音(舌尖邊音)인 來母字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東]

中古 36字母의 端母字와 定母의 仄聲字 들로 이루어져 있다.

2) [天]

中古 36字母의 透母字와 定母의 平聲字 들로 이루어져 있다.

3) [暖]

中古 36字母의 泥·娘母字로 이루어져 있다.

4) [來]

中古 36字母의 來母字로 이루어져 있다.

4. 舌尖面塞擦·擦音

中古 枝·微·澄母字 등의 舌上音(舌面塞音)과 照(莊·章)·穿(初·昌)·牀(崇·船)·審(生·書)·禪(侯·禪)母字 등의 正齒音(舌尖面塞擦·擦音) 그리고 半齒音(舌面鼻音)인 日母字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枝]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前人들은 中古 36字母의 枝·照(莊·章)母의 모든 글자와 澄·牀(崇·船)母의 仄聲字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나, 船母 仄聲字(실제로는 平聲字도 포함할 것이다.)는 이곳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上>母나 [上]母에 配列되고 있다.

2) [春]

[枝]母의 叙述에서의 현상과 같이, 前人들은 中古 36字母의 微·穿(初·昌)母의 모든 글자와 澄·牀(崇·船)母 그리고 禪(侯·禪)의 平聲字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나, 船母 平聲字(실제로는 仄聲字도 포함할 것이다.)는 한 글자도 이곳에 보이지않고, 禪母의 많은 글자도 <春>母나 [春]母나 [上]母와 섞이고 있다.

3) [上]

前人들의 研究에 의하면, 中古 36字母의 審母의 모든 글자와 禪母의 仄聲字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나, [枝]母와 [春]母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船母의 平聲 일부의 글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4) [人]

中古 36字母의 日母字로 이루어져 있다.

5. 舌尖塞擦·擦音

中古 36字母의 齒頭音(舌尖塞擦·擦音)인 精·清·從·心·邪母字로 이루어져 있다.

1) [早]

中古 36字母의 모든 精母字와 從母의 仄聲字로 이루어져 있으며, 送氣와 不送氣가 混用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僻字에 국한된다.

2) [從]

中古 36字母의 모든 清母字와 從母의 平聲字로 이루어져 있으며, 上記의 [早]와 더불어 送氣와 不送氣의 混用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僻字에 국한된다.

3) [雪]

中古 36字母의 心母字와 邪母字로 이루어져 있으며, 上記의 舌尖面音인 [上]母와는 그것이 舌尖

音인 관계로 發音部位의 近接으로 인하여 混用되기도 한다.

6.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牙(舌根塞·鼻)·喉(喉塞·擦)音 聲母인 中古 36字母의 見·溪·群·疑母字 및 影·曉·匣·喻母字 등의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날 普通話가 二等字에서 새로운 介音을 형성하듯, 이곳에서도 그 발단을 엿볼 수 있다.

1) [見]

中古 36字母의 모든 見母字와 群母의 仄聲字로 이루어져 있다.

2) [開]

中古 36字母의 모든 溪母字와 群母의 平聲字로 이루어져 있다.

3) [向]

中古 36字母의 曉母字와 匣母字로 구성되어 있다.

4) [一]

中古 36字母의 疑·影·喻母字로 이루어져 있으며, 普通話에서 零聲母化된 글자와 비교해 보면, 普通話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데, 普通話에서는 이곳의 모든 글자와 [無]母字가 섞이고 있는 것이다.

二. 韻 母

〈韻略易通〉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研究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研究된 〈中原音韻〉의 音價와 또한 〈中原音韻〉과의 관계 등을 참고로 하여, 먼저 〈韻略易通〉의 音價를 假定하고, 실제로 하나씩 대조하여 假定이 틀리면 假定을 고쳐 새로운 定例를 만드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本人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韻略易通研究〉를 叙述한 바 있다. 이제 〈韻略匯通〉의 音價를 推定하는데 있어서는, 本人이 이미 고찰한 바 있는 〈韻略易通〉의 音價를 기준으로 삼되, 많은 학자에 의해 研究되거나, 〈韻略匯通〉의 序文에 나타난 兩者간의 관계를 참고하여 叙述할 것이며, 이런 방법을 택하여 叙述하는 과정에서 配列의 출입을 자세히 살펴보면, /m-/韻尾의 /n-/化 현상은 물론이고, 때로는 主要元音 자체의 수정까지도 필요로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韻略匯通〉이 〈韻略易通〉에 비해 훨씬 傳統的觀念에서 벗어나, 入聲의 音價가 실제음에 맞는 陽聲韻을 찾아 그 밑에 配列된 것을 알 수는 있으나, 만약 완전히 傳統的觀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차라리 陰聲韻을 찾아 그 밑에 配列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예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이런 과정을 통하여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의 音韻史上的 위치와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 陰聲韻

〈韻略易通〉이나 〈韻略匯通〉이 모두 10개의 韻目을 設定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兩者간의 差異

口細音を /-ie/로, 合口細音を /-ye/로 推定한다. 이곳의 主要元音を /-e/대신 /-ε/로 推定하기도 하나, 이곳 또한 普通話의 音價를 참조하여 /-e/로 推定하기로 한다.

10) [幽樓]

《韻略易通》의 <幽樓>韻에서 유래한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韻略易通》의 音價를 따라 開口洪音を /-ou/로, 開口細音を /-iou/로 推定한다. 이곳의 主要元音を /-o-/ 대신 /-ə/로 推定하기도 하나, 이곳 또한 普通話의 音價를 참조하여 /-o-/로 推定하기로 한다.

2. 陽聲韻

《韻略易通》에서는 陽聲韻의 配列을 10개의 韻目에 나누어 配列한 반면, 《韻略匯通》에서는 6개의 韻目에 나누어 配列하면서, 分離되고 統合되는 樣相이 자못 번거롭게 되었으며, 이는 비록 아직도 '四聲俱全'의 傳統的觀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入聲을 設定하고는 있으나, 당시의 實際音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해 볼 때, 이 論文이 《韻略易通》과 比較 研究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며, 이 論文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陽聲韻과 후기할 入聲韻의 研究에 있어서는 먼저 《韻略匯通》의 凡例의 기술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眞文前三聲雖同, 而文字入聲特異, 舊混爲一, 一韻兩呼, 參差無當, 今以文韻入聲歸東洪, 仍易眞文爲眞尋焉」

「庚晴二韻入聲亦各異, 如眞文之類, 今以晴字入聲併收眞尋韻內。」

「端桓三聲與山寒相同, 入聲與江陽相同, 亦各分割併歸同聲焉, 合上數。」

위의 記述은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의 關係를 概略的으로나마 살필 수는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不充分하고 그 樣相을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韻略匯通》에 配列된 글자들을 한자한자씩 찾아 《韻略易通》의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兩者간의 關係와 音價를 推定하기로 한다.

1) [東洪]

《韻略匯通》[東洪]韻의 구성을 보면, 《韻略易通》의 모든 <東洪>韻 <庚晴>韻 雙脣塞·鼻音의 開口一·二等字와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合口一·二·三·四等字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東洪>韻의 合口一等字와 [開]·[向]·[-]母를 除外한 모든 合口三等字, <庚晴>韻 雙脣塞·鼻音의 開口一·二等字와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合口一·二等字는 洪音에 配列하였고, <東洪>韻 [開]·[向]·[-]母의 合口三等字와 <庚晴>韻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合口三·四等字는 細音에 配列하였다. 원래 《韻略易通》에서 <東洪>韻에 配列되었던 글자들이 《韻略匯通》에서도 [東洪]韻에 그대로 配列되어 音價로 /-ug/과 /-iug/을 취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겠으나, 《韻略易通》에서 <庚晴>韻 雙脣塞·鼻音의 開口一·二等字와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合口一·二·三·四等字가 《韻略匯通》에서 [東洪]韻에 配列된 것은 再考의 가치가 있다. 入聲에서는 <韻

略易通〉의 〈庚晴韻 雙唇塞·鼻音의 開口一·二等字와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配列된 合口一·二等字는 拙稿 〈韻略易通研究〉에서 推定한 〈庚晴韻의 音價대로 主要元音 /-ə-/를 취하는 〈庚晴韻에 配列하였고, 〈庚晴韻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合口三·四等字는 一般的으로 〔眞尋〕韻에 配列하여, 元音 /-y/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平·上·去聲에서는 入聲과는 달리 〔東洪〕韻에 配列하였으니, 그 이유를 살펴보면, 拙稿에서 지적한 바대로 〔中原音韻〕에서 崩 繡 迭, 鵬 糊 烹, 盲 甕 萌 猛 孟 孟, 兄, 榮 永 詠 瑩 등은 /pəŋ/과 /puŋ/, /p'əŋ/과 /p'uŋ/, /məŋ/과 /muŋ/, /xyəŋ/과 /xiuŋ/, /xəŋ/과 /iuŋ/ 등으로 重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韻略易通〕에서는 〈庚晴韻에 配列하여 〈東洪〕韻과는 명확히 구분하였고, 〔韻略匯通〕에서는 오히려 모두 〔東洪〕韻에 配列하였다. 이런 현상은 本人의 생각에 의하면, 入聲은 韻尾가 탈락되어 〔韻略易通〕과 같은 主要元音을 취하거나, 韻尾가 탈락되면서 主要元音 /-ə-/도 따라서 탈락되어 介音 /-y-/만 남아 /-y-/가 主要元音화된 반면, 平·上·去聲에서는 〈庚晴韻 雙唇塞·鼻音 開口一·二等字의 경우, 合口性的 唇音聲母와 韻尾 /-ŋ-/의 작용에 의해 主要元音이 /-ə-/보다는 /-u-/를 취하게 되었으며, 〈庚晴韻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合口一·二·三·四等字의 경우는, 合口인 /-u-/나 /-y-/와 韻尾 /-ŋ-/이 작용하여 主要元音 /-ə-/를 탈락시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韻略易通〕에서 /-yəŋ/의 音價를 취하는 〈庚晴韻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合口三·四等字는 그것이 〔眞尋〕韻에 配列되지 않고 〔東洪〕韻에 配列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音價는 /-yueŋ/이 되어야 合當할 것이다. 즉 위의 설명에서 우리는 韻尾 /-ŋ-/은 合口性的 聲母나 韻頭와 작용하여 그 사이의 元音이 合口化된다고 假定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假定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으니, 普通話에서도 오히려 〔韻略匯通〕과는 반대로 〔韻略易通〕의 配列法을 따라 主要元音이 /-ə-/이므로, 北音에서의 變化과정을 살펴보면, 〔中原音韻〕에서 /-uŋ/와 /-əŋ/으로 重讀되던 것이 〔韻略易通〕에서는 /-əŋ/으로 〔韻略匯通〕에서는 /-uŋ/으로, 普通話에서는 다시 /-əŋ/으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위의 假定대로 合口性和 韻尾 /-ŋ-/이 작용하여 音價를 變化시켰다고 볼 수 만은 없는 根據가 된다. 여기서는 단지 〔東洪〕韻의 音價를 /-uŋ/과 /-iuŋ/으로 推定하고, 合口性的 聲母나 韻頭와 韻尾 /-ŋ-/의 작용에 의해 그 사이의 元音이 변했다는 假定은 좀 더 研究되어야 할 과제로만 남긴다.

2) 〔江陽〕

〔江陽〕韻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두 〔韻略易通〕의 〈江陽〕韻에서 由來하고 있으므로 拙稿 〈韻略易通研究〉에서 소개한 音價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의 入聲韻을 比較해 보면, 入聲韻은 陽聲韻과 달리 〔韻略易通〕의 〈江陽〕韻 뿐만 아니라, 〈山寒〕韻과 〈緘威〕韻의 일부 글자와 모든 〔端桓〕韻의 글자까지도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根據하면 開口洪音과 合口洪音의 主要元音을 /-ɐ-/로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平·上·去聲에서는 入聲과는 달리 開口洪音과 合口洪音의 主要元音을 /-a-/로 推定한다면, 예를 들어 〔東〕母의 當 瑤 當 襠 當 鎗⁸⁾, 覺 謙 蕪, 當 陽 蕩 宕 蕩 當 襠 當 襠 當 蕩 蕩 當 鐸 度 跋 沃 曷 曷

8) 聲調가 달라서 「,」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에서도 같다.

撥敬褻奪咄 등은 同韻 同聲母에 配列된 똑같은 開口洪音임에도 불구하고, 平·上·去聲의 主要元音은 /-a-/이고, 入聲의 主要元音은 /-e-/가 되어 合理的이지 못하다. 즉 同韻 同聲母 同呼라면 그 主要元音이 같아야 하므로, 開口洪音과 合口洪音에서는 平·上·去聲의 主要元音을 모두 入聲과 같이 /-e-/로 바꾸거나, 또는 오히려 入聲의 主要元音을 모두 /-a-/로 고쳐야 할 것이다. 本人의 생각에 의하면 入聲에서는 <端桓>韻이 插入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a-/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며, 平·上·去聲의 音價를 入聲과 같이 /-e-/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江陽)韻의 開口洪音은 /-eŋ/, 開口細音은 /-ieŋ/, 合口洪音은 /-ueŋ/으로 推定하는 것이다.

3) [眞尋]

[眞尋]韻의 구성을 살펴보면 <韻略易通>의 <眞文>韻과 <侵尋>韻에서 由來한다. [眞尋]韻의 글자들이 모두 <韻略易通>의 <眞文>韻과 <侵尋>韻에서 由來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단지 韻尾 /-m/의 /-n/化 현상으로 인하여 合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主要元音을 /-ə-/로 하여, 開口洪音은 /-ən/, 開口細音은 /-en/, 合口洪音은 /-uən/, 合口細音은 /-yən/으로 推定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平·上·去聲과는 달리 入聲의 配列을 살펴보면, <韻略易通>의 <眞文>韻 開口의 글자는 開口洪音이 [庚晴]韻에, 開口細音은 [眞尋]韻에 配列되었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入聲에서는 主要元音이 서로 다른 /-ə-/와 /-i-/로 分離된 것을 알 수 있고, 合口의 글자는 合口洪音이 [東洪]韻에, 合口細音은 [眞尋]韻에 配列되었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그 主要元音은 각각 /-u-/와 /-y-/로 分離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平·上·去聲에서 그런 入聲과 相配한 글자들을 다시 主要元音 /-ə-/로 환원한다면, 예를 들어 [水]母에서 賓鑽瀆橫彬邠斌攸續, 稟牝臙殯擯鬣 등의 平·上·去聲은 /piən/의 音價를, 筆澤心畢鷲竅彈蹕毳燁邲弼泌鞞必壁碧燭苾翫鏘鬘 등의 入聲은 /pi/의 音價를 취하여, 그 配列上 같은 韻임에도 불구하고 平·上·去聲과 入聲의 主要元音이 각각 다르다는 不合理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假定을 세워보면, 만약 拙稿 <韻略易通研究>에서 推定한 <眞文>韻의 主要元音 /-ə-/가 잘못이고, 마땅히 開口洪音은 /-ə-/로, 開口細音은 /-i-/로 合口洪音은 /-u-/로, 合口細音은 /-y-/로 推定하는 것이 合理的이라면 결코 함께 <眞文>韻에 配列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런 假定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拙稿의 音價推定은 合理的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韻略易通>에서 主要元音이 /-ə-/인 <眞文>韻이 <韻略匯通>에서는 平·上·去聲과 入聲이 모두 入聲에서 推定할 수 있는대로 /-ə-/, /-i-/, /-u-/, /-y-/ 등이라면 비록 入聲은 서로 다른 韻에 나뉘어 配列되어 合當하지만, 平·上·去聲은 그 主要元音이 다르면서도 어찌하여 함께 [眞尋]韻에 配列될 수 있던 말인가? 本人의 생각에 의하면 平·上·去聲과 入聲이 그 主要元音이 다르면서도 同韻에 配列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韻略匯通>이 <韻略易通>에 비해서는 '四聲俱全'이라는 傳統的觀念에서 탈피한 감이 없지 않으나 아직 확연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入聲이 [眞尋]에서 /-i/와 /-y/를 취하는 것은 그 音價로 미루어 만약 완전히 傳統的觀念을 벗어났다면 차라리 入聲이라는 調名을 없애고 陰聲韻인 [居魚]韻에 配列하는 것이 合當할 것이다. 그러므로 平·上·去聲과 入聲은 그 主要元音이 약간 다르면서도 同韻에 配列되는 不合理성을

보였다고 생각되며, 이곳에서는 단지 나타난 현상대로 開口洪音은 /-ən/, 開口細音은 /-iən/, 合口洪音은 /-uən/, 合口細音은 /-yən/으로 推定하기로 한다.

4) [庚晴]

[庚晴]韻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글자가 《韻略易通》의 〈庚晴〉韻에서 由來하고 있다. 拙稿 《韻略易通研究》에 의하면 〈庚晴〉韻은 主要元音을 /-ə-/로하고, 韻尾를 /-ŋ/으로하는 韻이므로, 이곳에서도 開口洪音은 /-əŋ/으로, 開口細音은 /-iəŋ/으로 推定한다.

5) [先全]

[先全]韻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글자가 《韻略易通》의 〈先全〉韻과 〈廉纖〉韻에서 由來하고 있으므로, 《韻略易通》에서 兩韻 모두가 취하고 있는 /-e-/를 主要元音으로 하고, 〈廉纖〉韻의 韻尾 /-m/이 /-n/化되어 〈先全〉韻에 섞이고 있으므로, 이곳의 音價는 開口細音은 /-ien/로, 合口細音은 /-yen/로 推定하는데 별무리가 없다.

6) [山寒]

[山寒]韻의 구성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글자를 《韻略易通》의 〈山寒〉韻에서 취하고 있으며 일부의 글자는 〈端桓〉韻에서 취하여 合口洪音에 배열하고 있는데, 《韻略易通》의 〈端桓〉韻의 글자가 전혀 섞이고 있지 않은 開口洪音과 開口細音의 경우는 音價로 /-an/과 /-ian/을 취하여도 별 무리는 없다. 그러나 合口洪音에 있어서는 《韻略易通》의 〈端桓〉韻과 섞이고 있음으로 音價로 무조건 /-uan/을 취하는 것을 보류하고 자세히 고찰해 본다. 本人의 推論에 의하면, 〈端桓〉韻은 主要元音이 /-o-/이기 때문에 介音 /-u-/와 調音點이 비슷하여 主要元音 /-o-/가 介音 /-u-/에 同化되어 脱落되고 단지 /-u-/만 남았다고 보며 이런 방법이 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妥當性이 있는 假定으로 생각되므로 일단 合口洪音 역시 主要元音을 /-a-/로 하여 /-uan/으로 推定한다.

3. 入聲韻

1) [東洪]

[東洪]韻의 구성을 보면 〈東洪〉의 모든 合口一·二等字와 〈眞文〉韻의 모든 合口一等字, 唇齒擦音의 合口三等字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東洪〉韻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合口三等字만이 合口細音에 配列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合口洪音에 配列되어 있다.

여기서 《韻略易通研究》에서 단지 喉塞音 /-ʔ/로 하고 그 推定을 미룬 入聲音價를 推定하기 위해, 入聲字 輔音韻尾의 變化과정을 살펴 볼 때, 대체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첫째, 入聲字의 輔音韻尾가 모두 똑같은 형태로 變化됐다.

둘째, 入聲字의 輔音韻尾가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 중국 各地의 方言을 볼 때, 吳語 등에서는 入聲字의 輔音韻尾가 모두 喉塞音 /-ʔ/로 變

化되기도 하였지만, 北方官話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즉 《韻略匯通》이나 《韻略易通》은 모두 北音系韻書의 일종이므로 이미 輔音韻尾가 소실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韻略易通研究》에서 그 音價를 推定치 못하고 단지 喉塞音 /-ʔ/로 設定한 바 있으니, 여기서는 敘述의 편의를 위해 輔音韻尾가 喉塞音 /-ʔ/을 거쳐 소실된다고 보고 기술한다.

《韻略易通研究》에서 〈東洪〉韻의 平·上·去聲 音價는 /-uŋ/과 /-iuŋ/로 소개한 바 있으니, 그것과 相配되는 入聲 音價 /-uʔ/과 /-iuʔ/이 탈락되고, /-i/와 /-iu/가 된다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眞文〉韻의 일부 글자가 이곳에 함께 배열되고 있으므로, 〈眞文〉韻의 일부 글자가 〈東洪〉韻에 함께 配列된 이유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凡例에 「眞文前三聲雖同, 而文字入聲特異, 舊混爲一·一韻兩呼, 參差無當, 今以文韻入聲歸東洪」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韻略易通》의 〈東洪〉韻이 《韻略匯通》의 〈眞尋〉韻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韻略易通》의 〈眞文〉韻 중 文韻 入聲이 《韻略匯通》의 〈東洪〉韻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音의 變化는 〈眞文〉韻이 〈東洪〉韻으로 變化된 근거를 찾아야 한다. 《韻略易通研究》에서 〈眞文〉韻 平·上·去聲의 音價는 /-ən/, /-ian/, /-uən/, /-yən/이며, 그중 文韻의 音價로 /-uən/을 취한다면, 《韻略易通研究》에서 규정한 그것과 相配되는 入聲의 音價는 /-uəʔ/이므로, 喉塞音 /-ʔ/이 탈락된 후 마땅히 /-uə/가 될 것이나, 文韻의 入聲音價가 /-uəʔ/라면 主要元音이 /-ə-/인 [庚晴]韻에 配列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東洪]韻에 配列된 것으로 미루어, 文韻 入聲의 喉塞音 /-ʔ/은 탈락되면서 主要元音 /-ə-/도 따라서 탈락되어 介音 /-u-/만 남아 새로운 主要元音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東洪]韻의 合口洪音은 /-u/이며, 合口細音은 /-iu/라고 推定한다.

2) [江陽]

[江陽]韻의 구성을 보면 《韻略易通》의 〈江陽〉韻 및 〈端桓〉韻의 모든 글자, 〈山寒〉韻과 〈緘威〉韻의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開口一等字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江陽〉韻의 雙唇塞·鼻音과 舌尖塞·鼻·邊音의 開口一·二等字, 舌尖塞擦·擦音과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開口一等字, 〈山寒〉韻과 〈緘威〉韻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開口一等字, 〈江陽〉韻 〈風〉母의 合口三等字, 〈端桓〉韻 雙唇塞·鼻音, 舌尖塞·鼻·邊音, 舌尖塞擦·擦音의 合口一等字 등은 開口洪音에 配列되었고, 〈江陽〉韻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開口二·三等字, 舌尖面塞擦·擦音과 舌尖塞擦·擦音 및 [來]母의 開口三等字 등은 開口細音에 配列되었으며, 〈江陽〉韻 舌尖面塞擦·擦音의 開口二等字, 〈江陽〉韻과 〈端桓〉韻의 合口一·三等字는 合口洪音에 配列되었다.

[江陽]韻을 구성하는 글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開口洪音과 合口洪音에 配列된 일부 글자가 〈江陽〉韻, 〈山寒〉韻, 〈緘威〉韻 등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韻略易通研究》에서 推定한 《韻略易通》의 音價를 따라, 그 主要元音을 /-a/나 /-a/로 推定하던지, 아니면 그 중간 音價를 취하여 /-A/로 推定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또한 만약 凡例 「端桓前三聲與山寒相同, 入聲與江陽相同, 亦名分割併歸同聲焉, 合上數」에 言及된 바와는 달리 開口洪音이나 合口洪音에 〈端桓〉韻의 合口가 配列되지 않았다면, 〈山寒〉韻과 〈緘威〉韻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의 開口一等字이 細音性的 開口二等字와 分離된 것으로 미루어, 《韻略易通研究》에서 推定한 대로, 〈山寒〉韻과

〈臧威〉韻의 主要元音은 그대로 /-a/로 하고, 分離되어 [江陽]韻에 配列된 開口一等字는 /-a/보다는 좀더 洪音性인 /-a/를 취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 싶다. 그러나 凡例에서도言及된 바와 같이 〈端桓〉韻의 合口가 이곳에 함께 配列되고 있으니, 결국 /-a/보다는 좀 더 洪音性을 띠고, /-a/보다는 좀더 細音性을 띠면서, 〈端桓〉韻의 主要元音 /-a/의 성질에 좀 더 가까운 /-a/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開口細音은 오로지 [江陽]韻의 글자 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韻略易通研究》에서 推定한 《韻略易通》의 主要元音을 그대로 취하여 /-a/로 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江陽]韻의 入聲音價를 開口洪音은 /-a/, 開口細音은 /-ia/, 合口細音은 /-ua/로 推定한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凡例의 記述에 비추어 볼 때, 平·上·去聲에서는 [江陽]韻에 결코 〈端桓〉韻의 글자들이 配列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로인해 여기서 推定한 開口洪音과 合口洪音의 主要元音 /-ɐ/는 入聲音價일 뿐, 平·上·去聲의 音價는 아니라고 보고 [江陽]韻을 구성하는 平·上·去聲은 開口洪音, 開口細音, 合口洪音을 막론하고 《韻略易通》의 [江陽]韻에서만 취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韻略易通研究》에서 推定한대로 主要元音을 모두 /-a/로 한다면, 함께 配列했으면서도 平·上·去聲의 主要元音 /-a/이고, 入聲은 /-ɐ/와 /-a/로 구분되는 不合理한 점이 발견된다. 筆者의 생각에 의하면 入聲의 音價는 실제 나타나는 現象대로 위와 같이 推定해야 하고, 平·上·去聲 또한 入聲의 音價와 일치되어 바꾸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3) [眞尋]

[眞尋]韻의 구성을 보면 《韻略易通》의 〈眞文〉韻 및 〈侵尋〉韻의 開口三等字, 〈庚晴〉韻의 開口三·四等字는 開口細音에, 〈眞文〉韻 合口三等字, 〈庚晴〉韻의 合口三·四等字는 合口細音에 配列되어 있다.

[眞尋]韻의 글자가 모두 《韻略易通》에서 主要元音 /-ə-/로 한 〈眞文〉·〈庚晴〉·〈侵尋〉韻 등에서 유래하고 있지만, 《韻略匯通》[眞尋]韻의 主要元音 /-ə-/로 한다면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앞으로 〈庚晴〉韻에서도 說明되어야 하겠지만, 《韻略易通》의 〈眞文〉·〈庚晴〉·〈侵尋〉韻에서 유래한 글자들은, 대체로 《韻略匯通》에서는 洪音은 [庚晴]韻과 [東洪]韻에 配列한 반면, 細音은 [眞尋]韻에 配列하고 있다. 즉 [東洪]韻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主要元音 /-u-/이므로, [眞尋]韻의 主要元音을 /-ə-/로 하여 구분한다해도 별 무리가 없겠으나, [庚晴]韻과 비교해 볼 때, 音價가 다르기 때문에 [眞尋]韻과 [庚晴]韻으로 兩分되었을 것이므로, 모두 主要元音을 /-ə-/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ㅅ사리 洪音은 [庚晴]韻에 配列되어 主要元音을 《韻略易通》과 같이 그대로 /-ə-/로 한 반면, 細音은 入聲音尾인 喉塞音 /-ʔ/이 탈락되는 과정에서 主要元音을 /-ə-/까지 탈락되어 ㅅ音이 主要元音化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開口細音의 音價는 /-i/로, 合口細音의 音價는 /-y/로 推定한다. 물론 《韻略易通研究》에서 이미 〈眞文〉·〈庚晴〉韻 合口細音의 音價를 /-yəʔ/로 推定한 바 있으므로, 合口細音의 音價를 主要元音 /-ə-/와 喉塞音 /-ʔ/가 탈락된 후 /-y/만 남아 이것이 主要元音化 되었다고 보는데는 별 무리가 없지만, 혹 /-y/와 /-iu/를 혼동하여 만약 이 音價를 /-iu/로 한다면, 〈眞文〉韻 合

口洪音이 이미 主要元音을 /-u/로 하고, 細音도 똑같이 主要元音을 /-u/로 하고 있기 때문에 兩分될 까닭이 없으며,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에서는 (東洪)韻 合口細音과 (眞尋)韻 合口細音의 音價가 똑같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이곳의 音價는 필히 /-y/로 함이 마땅할 것이다.

4) [庚晴]

[庚晴]韻이 구성을 보면 《韻略易通》의 <眞文>韻 開口一·二等字, <庚晴>韻의 모든 開口一·二等字와 舌尖面塞擦·擦音 莊系인 開口三等字와 [梅]母 合口二等字인 麥霰脉, <侵尋>韻의 <上>母 開口三等字(莊系)인 霽 등은 開口洪音을 이루고, <庚晴>韻 <見>·<向>母의 合口一·二等字는 合口洪音을 이룬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庚晴]韻은 《韻略易通》의 <眞文>·<庚晴>·<侵尋>韻 등이 섞이고 있으며, 拙稿 《韻略易通研究》에서 上記 三韻의 主要元音을 모두 /-ə-/로 推定한 바 있으므로, 이제 그 入聲韻尾 /-ʔ/가 탈락된 형태로서 開口洪音은 /-ə/로, 合口洪音은 /-ə/로 推定할 수 있겠다.

5) [先全]

[先全]韻의 구성을 보면 《韻略易通》의 <先全>韻 모든 開口三·四等字와 <廉纖>韻 모든 開口二·三·四等字는 開口細音을 이루고, <先全>韻 모든 合口三·四等字는 合口細音을 이룬다. 拙稿 《韻略易通研究》에서 <先全>韻과 <廉纖>韻 入聲의 開口細音과 合口細音을 각각 /-ieʔ/와 /-yeʔ/로 소개한 바 있으므로, 《韻略匯通》에서 音價를 각각 喉塞韻尾 /-ʔ/가 탈락된 형태인 /-ie/와 /-ye/로 推定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

6) [山寒]

[山寒]韻의 구성을 보면 《韻略易通》의 <山寒>韻과 <緘威>韻에서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를 除外한 모든 開口一·二等字, <山寒>韻 唇齒擦音의 合口三等字는 開口洪音을 이루고, <山寒>韻과 <緘威>韻의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開口二等字는 開口細音을 이루며, <山寒>韻 <枝>·<上>·<見>·<向>·<一>母 등의 合口二·三等字는 合口洪音을 이룬다. 위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조리 《韻略易通》의 <山寒>韻과 <緘威>韻에서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拙稿 《韻略易通研究》에서 밝힌 兩韻目的 主要元音인 /-a-/를 그대로 채용하여, 開口洪音은 /-a/, 開口細音은 /-ia/, 合口洪音은 /-ua/로 推定하는데 별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再考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韻略易通》<端桓>韻의 글자들 중 入聲 《韻略匯通》에서 모조리 [江陽]韻의 開口洪音과 合口洪音에 配列된 반면, 平·上·去聲은 모조리 [山寒]韻의 合口洪音에 配列되고 있는 것이다. 《韻略匯通》에서 [江陽]韻의 音價를 정하는데 있어서, 開口洪音과 合口洪音은 《韻略易通》<端桓>韻에서 유래한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 音價를 /-a/와 /-ua/로 할 필요성이 있었듯이, [山寒]韻 唇音의 開口洪音과 唇音을 除外한 모든 合口洪音 역시 平·上·去聲의 글자들이 [山寒]韻 뿐 아니라 <端桓>韻에서도 유래한 것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 音價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本人의 생각에 의하면 비록 唇音에서는 開口洪音까지도 <端桓>韻에서 유래된 것이 있지만, 唇音은 이미 開合口가 불분명해서 拙稿 《韻略易通研究》에서도 普通話

의 音價를 참고하여 단지 開口에 上입했을 뿐이므로, 그 성질은 이미 合口과 비슷하고 나머지 모든 合口洪音은 介音 /-u-/와 主要元音 /-o-/가 그 調音點이 비슷한 것으로 말미암아, 同化되어 主要元音 /-o-/는 모두 탈락되고 단지 介音 /-u-/만 남았다고 보며, [山寒]韻의 主要元音 /-a/는 수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므로 [山寒]韻의 開口洪音은 /-a/, 開口細音은 /-ia/, 合口洪音은 /-ua/로 推定한다.

三. 聲 調

《韻略易通》의 聲調분류를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平·上·去·入聲의 4個 聲調로 나누고 있으나, 실제로는 平聲부분을 「0」로써 兩分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5個 聲調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韻略匯通》의 경우는 처음부터 平聲부분에 따로 下平聲이라는 調名을 設定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韻略易通》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韻略易通》이 단지 「0」을 써서 분류함으로써 《韻略匯通》에 비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어떤 差異를 보이고 있는가는 平聲부분에서 자세히 고찰되어야 할 것이며 이곳에서는 단지 형식을 설명할 뿐이다.

聲調의 研究에 있어서는 中古에서 普通話로의 變化를 참고하되, 本人의 研究인 中古에서 《韻略易通》으로의 變化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韻略匯通》의 것을 살펴보고자한다. 즉 中古에서 普通話로의 聲調變化 법칙을 살펴보면 :

하나, 平聲의 淸聲母는 陰平聲(一聲)으로, 濁聲母는 陽平聲(二聲)으로 변하였다.

둘, 全濁上聲字는 去聲(四聲)으로 변하였다.

셋, 入聲이 平·上·去聲(一·二·三·四聲)으로 변하면서 入聲韻尾가 소실되었다.

와 같으나 上記의 變化 과정 중 本人이 고찰한 것에 의하면, 《韻略易通》의 경우는 全濁上聲字의 글자들이 普通話에서와 같이 거의 모두 去聲(四聲)으로 變化된 것이 아니고, 많은 全濁上聲字가 아직 그대로 上聲(三聲)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本稿를 敘述함에 있어서는 全濁上聲字의 變化를 살펴보되 자주 혼동되는 去聲과 더불어 상세히 고찰할 필요를 느낀다.

1. 平 聲

《韻略易通》은 平聲의 분류에 있어서 실제로 調名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0」로써 나누고 있을 뿐이다. 이런 분류를 단지 蘭茂 자신이 調名을 쓰고 있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普通話에서와 같이 聲母의 淸濁을 조건으로 분류했다고 보는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즉 普通話의 變化를 따른다면 陰平聲(一聲)에 配列되어야 할 中古의 淸聲母가 오히려 陽平聲에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西微〉韻의 崔(倉回切)(蟹合一平灰淸) 등은 普通話에서 一聲으로 읽히나 《韻略易通》에서는 普通話에서 역시 一聲으로 읽히는 同反切의 催(續) 등과 「0」로써 분리하여 配列하였다.

陽平聲(二聲)에 配列되어야 할 中古의 濁聲母가 오히려 陰平聲에 섞여 들어가기도 하며,

〈西微〉韻의 遲(直尼切(止開三平脂澄) 등은 普通話에서 二聲으로 읽히나, 〈韻略易通〉에서는 同反切字인 氐氐등과 분리되어, 오히려 普通話에서 一聲으로 읽히는 咄 등의 글자와 섞였다.

이런 聲母 清濁의 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韻母의 開合이나

〈遮蛇〉韻의 癩(巨靴切)(果合三平戈群) 등은 普通話에서 모두 二聲으로 읽히나, 〈韻略易通〉에서는 「o」로써 분리되어 있으며, 이는 아마도 中古의 開口音과 合口音이 上平聲과 不平聲으로 분리되어서라기 보다는 普通話와 같이, 前者가 合口細音으로, 後者가 開口細音으로 읽히는 것을 聲調의 분리로 잘못 인식한 데서 오는 결과로 본다.

洪細의 差異로 인한 분류도 보인다.

〈東洪〉韻의 農膿(奴冬切)(通合一平冬泥) 등과 濃穠(女容切)(通合三平麻曉) 등은 普通話에서 비록 /nʊŋ/의 二聲으로 발음이 같으나, 中古의 反切이 開細의 差異를 보일 뿐 아니라, 〈中原音韻〉에서도 前者는 合口洪音에, 後者는 合口細音에 配列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韻略易通〉 당시에도 開細의 差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며, 그것을 〈韻略易通〉에서는 聲調의 差異로 잘못 인식한 것 같다.

그러나 이렇듯 平聲에 있어서 어느 정도 不合理한 〈韻略易通〉의 配列을 〈韻略匯通〉에서는 많은 곳에서 수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上記 〈西微〉韻 崔의 경우는 〈韻略匯通〉에서 [灰微]韻에 配列하면서, 〈韻略易通〉에서 兩分된 配列을 없애고, 催續 등과 한 곳(上平聲)에 配列하였고, 〈西微〉韻의 遲 또한 普通話에서 二聲으로 읽히는 것과 같이 〈韻略易通〉의 配列法을 바꾸어 下平聲에 氐氐 등과 함께 配列하고 있으며, 〈遮蛇〉韻에 配列된 癩, 茄伽의 경우 그것이 비록 普通話에서와 같이 合口細音과 開口細音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어서 普通話와는 樣相을 달리하고 있지만 한 곳에 함께 配列함으로써 聲調의 區分을 없앴다. 또한 〈東洪〉韻의 農膿, 濃穠 등도 區分을 없애고 한 곳에 함께 配列하였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韻略匯通〉은 〈韻略易通〉의 많은 곳을 수정하고는 있지만 普通話와 비교해 볼 때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며

〈東洪〉韻 芎(去宮切)(通合三平東溪) 등을 예로 든다면, 普通話에서 一聲으로 읽히는 中古의 次清聲母이므로 똑같은 次清聲母인 凶匈兇胸 등과 함께 配列되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韻略易通〉에서는 次清聲母인 雄熊 등과 함께 配列하고 있는데, 〈韻略匯通〉은 결코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再論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2. 上 聲

일반적으로 中古에서 普通話로의 聲調變化에 있어서는 全濁上聲字가 去聲(四聲)으로 변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韻略易通》의 경우 비록 그것이 普通話와 같은 北音의 일종이라 할지라도 普通話에 비하여 현저하게 去聲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上聲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韻略易通》의 경우는 全濁上聲字의 變化를 그대로 上聲에 남아 있는 경우와 去聲으로 변한 경우로 兩分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韻略匯通》의 경우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는 비교해 볼만한 가치가 있으며, 이런 비교를 통하여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의 普通話와의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들 토대로 본다면, 《韻略匯通》은 《韻略易通》의 樣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眞文〉韻 〈向〉母의 混混(胡本切)(臻合一上混匣)과 같은 글자는 中古의 反切이 全濁上聲字로서, 普通話에서는 四聲으로 읽히는 글자이나, 《韻略易通》에서는 上聲에 配列하였고, 《韻略匯通》도 上聲에 配列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韻略匯通》이 《韻略易通》에 비하여, 平聲에 있어서는, 불규칙적인 점을 크게 바꾸어 놓기는 했다고 하지만, 上聲의 처리로 보면, 결국 《韻略易通》을 답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실제로 당시 그들 方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去 聲

去聲의 경우를 살펴보면 물론 普通話의 경우라고 例外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隱(於斬切)(臻開三去焮影)은 中古 反切이 去聲임에도 불구하고 普通話에서 三聲으로 읽힌다.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의 경우가 普通話에 비하여 去聲이 去聲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上聲으로 변한 경우가 자주 보인다.

〈東洪〉韻 〈天〉母의 統(他綜切)(統合一去宋透)의 경우, 普通話는 四聲으로 읽히며, 《韻略易通》이 上聲에 配列한 것과 같이, 《韻略匯通》도 〈東洪〉韻 〈天〉母의 上聲에 配列하고 있다.

4. 入 聲

本稿의 敘述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래 北音系統은 現代의 普通話가 그렇듯이 入聲이 소실되었고, 그러한 樣相은 이미 《中原音韻》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中原音韻》보다 後代의 韻書인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이 아직까지 入聲의 調名을 씀으로 인하여, 마치 그때까지 入聲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당시의 實際音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韻略易通》이 '四聲俱全'의 傳統的觀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분류한 것이며, 《韻略匯通》 또한 《韻略易通》의 이런 형식적 분류를 따랐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분류로 인하여, 《韻略易通》이라는 단 하나의 韻書만을 가지고 《韻略易通》의 入聲의 實際音價를 살펴보는 데에는, 그것이 實際音을 반영했다라기 보다는 단지 陽聲韻에 相配시킨다는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분류로 인하

여 同音이면서도 서로 다른 韻目에 나뉘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同音異韻 현상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音 價	韻 舒 聲 音 價		韻 舒 聲 音 價		韻 舒 聲 音 價	
ə?	眞 文	ən	庚 晴	əŋ	侵 尋	əm
iə?		iən		iəŋ		iən
uə?		uən		uəŋ		
yə?		yən		yəŋ		
a?	山 寒	an			緘 咸	am
ia?		ian				iam
ie?		ien				iem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舒聲韻의 配列에 있어서는 韻尾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韻이지만, 入聲韻의 경우는 樣相이 다르다. 예를 들어 위의 〈眞文〉·〈庚晴〉·〈侵尋〉韻의 경우, 그 舒聲韻을 살펴보면 韻尾가 /-n/, /-ŋ/, /-m/ 등으로 서로 달라 마땅히 서로 다른 韻目에 配列되어야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入聲韻의 경우는 韻尾 /-t/, /-k/, /-p/가 모두 喉塞音聲母 /-ʔ/로 변했다고 보았으므로, 결국 韻頭(介音)와 韻腹(主要元音)이 이미 같고 韻尾(收音) 또한 같게 되고 말았으니 마땅히 함께 같은 韻에 配列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舒聲韻의 配列을 따라 서로 다른 韻目에 配列하였고, 이로 인하여 同音異韻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韻略匯通》의 配列은 《韻略易通》의 이런 同音異韻 현상을 정리하여 서로 같은 韻은 舒聲韻과 入聲韻을 막론하고 함께 配列하였고, 서로 다른 韻은 서로 다른 곳에 配列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韻略易通》에서 같은 韻目에 配列된 舒聲韻과 入聲韻이 《韻略匯通》에서는 서로 다른 韻目에 나누어 配列되기도 한 것인데, 이것이 곧 《韻略匯通》이 《韻略易通》에 비하여 傳統의 觀念에서 벗어나 좀더 實際音에 충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 당시 實際音을 推定해 보는 것이다.

Ⅲ. 結 論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의 差異點을 살펴볼 때,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入聲韻의 配列은 당시 實際音을 살펴보는데 결정적인 端緒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同音異韻 현상을 없애고 새롭게 配列한 《韻略匯通》의 配列法은 과연 탁월한 견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당시의 여러 韻書를 살펴볼 때, 이미 없어져야 할 入聲을 아직도 設定하여 陽聲韻에 덧붙인 것과 見**#⁹⁾

9) 〈**〉韻의 #라는 글자를 의미한다.

등의 방법으로 相配되는 入聲이나 平·上·去聲의 配列 위치를 알린 것 등은, 《韻略匯通》 역시 《韻略易通》과 마찬가지로 '四聲俱全'의 觀念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眞尋]韻 入聲韻의 音價로 推定한 /-i/와 /-y/ 등은 그것이 만약 정확한 推定이라면, 차라리 陰聲韻인 [居魚]韻에 配列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此後 좀 더 明確한 考察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Summary

Inference of Phonetic Value in 《Yun Lue Yi Tong》

Jae-Cheol Ahn

Chinese characters are classified into groups according to their period : First, Archaic of the Xian-Qin Dynasty represented by 《Shi-Rime》, Xie-Sheng Characters, etc second, Ancient represented by the Qie-Yun branch of phonological books of the Sui Tang Dynasty ; third, Pre-modern Archaic reflected by 《Gu Jin Yun Hui Ju Yau》 in the late Song Times ; fourth, Pre-modern represented by 《Zhong Yuan Yin Yun》 of the Yuan Dynasty ; fifth, Modern including mandarin and dialects. Through classifying these many groups, we can realize important characteristics. That is to say, 《Yun Lue Yi Tong》 and 《Yun Lue Hui Tong》 succeeds from 《Zhong Yuan Yin Yun》 in the Yuan age. Also, a northern branch of phonological books opened up mandarin. Both of these influences, therefore, play major role in studying mandarin these days.

As I infer the phonetic value of 《Yun Lue Yi Tong》, this manuscript gainde th phonetic value which mentioned above by comparing with phonetic value of 《Yun Lue Yi Tong》 in 《Study of Yun Lue Yi Tong》